

# KIA, 신인 내야듀오 대박 조짐

‘제2의 이종범’ 김도영 이어 입단 동기 윤도현도 타격 과시  
“도영이도 잘하지만 도현이도 실력 좋아”...내야 경쟁 치열



윤도현  
KIA 타이거즈의 2022 신인 내야 듀오가 흥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2의 이종범이라 불리는 김도영과 더불어 그의 입단 동기인 윤도현까지 범상치 않은 타격으로 데뷔 시즌 전망을 밝히고 있다. KIA 김중국 감독은 지난 주말 부산 기장군

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 KT와의 연습경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신인 내야수 윤도현의 잠재력을 주목했다. 김 감독은 “윤도현이 김도영 못지않게 자질이 좋다. 특히 타격에서 신인답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관

심을 보였다.

윤도현은 광주제일고를 나와 2022 KIA 2차 2라운드 15순위로 입단한 내야 유망주다. 아마추어 시절 광주동성고 내야수 김도영과 지역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고, 프로에서 KIA 1차 지명된 그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 사실 김도영, 문동주 등 대형 신인들에 가려져서 그렇지 윤도현도 충분히 주전 내야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윤도현의 능력은 지난 5일 KT와의 연습경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했다.

9번 2루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2-0으로 앞선 2회 무사 1, 3루서 등장해 KT 선발 배제성을 상대로 달아나는 1타점 우전 적시타를 때려냈다. 최근 3년간 29승을 거둔 배제성의 공을 밀어치기를 통해 안타로 만들었고, KIA 선배들은 큰 환호로 루키의 과감한 타격에 박수를 보냈다. 이후 3회 수비에서는 역모션 동작임에도 천천히 1루에 송구해 타자 주자를 아웃시키는 여유를 보였다.

윤도현은 친구 김도영이 건강 문제로 이탈하며 신인 야수들 중 유일하게 1군 캠프를 온전히 소화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하성을 본받고자 학창시절 타격폼을 바꾼 그는 이번 캠프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일발 장타력까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KIA 관계자는 “(김)도영이도 잘하지만 (윤)도현이도 실력이 좋은 선수다. 방망이를 아무지게 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주목했다.

김도영, 윤도현 등 특급 유망주의 등장으로 KIA 내야는 모처럼 활발한 경쟁의 장이 열렸다. 워낙 대형급 신인들이 나타나면서 기존 박찬호, 류지혁, 김태진 등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들이 동반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KIA의 최근 3년간 최대 약점이었던 얇은 뎀스가 올해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팀은 무조건 선수층이 두터워야 한다.

사령탑은 선수단 전체에 야생 호랑이 같은 공격적인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어린 선수일수록 결과보다 과정을 신경쓰라고 말한다. 김 감독은 “모든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다. 반복을 해야한다”며 “투수, 야수 모두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적극적이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슬비 기자

## ‘807골’ 호날두, 역대 개인 통산 최다골 경신

비칸 805골 넘어 807골 신기록...맨유서 14년 만에 헤트트릭 달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가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호날두는 13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1~2022시즌 EPL 29라운드 토트넘 홉스퍼와의 홈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하며 맨유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3골을 추가한 호날두는 개인 통산 807골을 기록했다.

국제스포츠추진위원회(RSSSF)에 따르면 호날두는 이날 헤트트릭으로 2001년 사망한 체코 출신 공격수 요세프 비칸(805골)을 넘어 이 부문 신기록을 달성했다.

호날두, 비칸에 이어 호마리우(브라질 772골),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759골), 펠레(브라질 757골) 순이다.

다만, 체코축구협회는 앞서 비칸이 총 821골

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RSSSF의 집계를 반박한 바 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450골을 넣었고, 맨유에선 136골을 기록 중이다.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선 101골, 스포르팅 CP(포르투갈)에선 5골을 넣었다.

포르투갈 국가대표로는 115골을 기록하고 있다.

토트넘전 헤트트릭은 개인 통산 59번째이자 맨유 소속으로는 2008년 1월12일 뉴캐슬전(6-0 승) 이후 14년 59일 만이다.

이는 EPL 역사상 한 선수가 가장 긴 간격을 두고 달성한 헤트트릭이다.

만 37세35일인 호날두는 2008년 은퇴한 테디 셰링엄(만37세 146일)에 이어 EPL 최고령 헤트트릭 2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호날두의 활약으로 토트넘을 제압한 맨유는 1992년 EPL 출범 이후 홈 경기 통산 400승 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2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9라운드 토트넘 홉스퍼와의 경기 후반 36분 세 번째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맨유는 호날두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3-2로 승리했다.

성에도 성공했다.

맨유는 572번의 홈 경기에서 400승108무64패(승률 69.9%)를 기록 중이다.

호날두는 경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드 트래포드에 돌아와 첫 헤트트릭을 달성해 행복하다. 팀 승리를 도와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시스

## 콘테 감독 “손흥민, 중요한 선수...모든 걸 쏟았어”

맨유전 선발 풀타임 불구 침묵에도 신뢰 보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전에서 침묵한 손흥민(30)을 강조했다.

토트넘은 13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1~2022시즌 EPL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3으로 졌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었지만, 침묵했다. 특히 후반전엔 결정적 득점 기

회에서 미끄러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맨유 전설이자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게리 네빌은 손흥민과 케인을 부진을 언급하며 혹평하기도 했다. 현지 매체인 풋볼런던도 손흥민에 대해 “축구가 신을 잘못 신었는지 몇 차례 미끄러졌다.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았다”며 팀 내 최저 평점은 4점을 매겼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이 경기 중 미끄러진 건 그저 불운한 일”이라며 “그는



오늘 모든 걸 쏟았다. 잘 풀리는 경기가 있는 반면 미끄러지는 경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말 팀에 중요한 선수다. 지난 에버턴전에도 그랬지만 차이를 만들 줄 아는 선수”라고 신뢰를 보였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개회식에서 휠체어컬링 대표팀 ‘강윤정고백’의 리드 백혜진을 선두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 투혼 펼친 한국 선수단, 8년 만에 ‘노메달’

### 패럴림픽 결산

한국 선수단이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대회 전 세운 목표에는 닿지 못했다.

당초 동메달 2개(종합 25위권 진입)를 목표로 삼았던 한국 선수단은 ‘노메달’로 13일 대회 폐막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선수 32명과 임원 50명 등 총 82명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알파인스키 장대군(서울시장애인스키협회)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합류하지 못하면서 총 79명(선수 31명·임원 48명)이 참가했다.

### ◇ ‘동메달 2개’ 목표 달성 못 해...8년 만에 ‘메달 0개’

한국이 동계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건 2014년 소치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1992년 제5회 프랑스 티뉴-알베르빌 대회부터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한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까지 꾸준히 참가해 통산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첫 메달인 은메달 1개를 수확했고, 2010년 밴쿠버에서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안방에서 열린 2018 평창 대회 때는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6위를 기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열린 베이징 대회에 선 동메달 2개를 목표로 내세웠다.

평창에서 한국의 사상 첫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낸 장애인노르딕스키 간판 신의현(42·창성건설)과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최연소’ 국가대표인 알파인스키 최사단(19·서울시장애인스키협회), ‘팀 장운정고백’(의정부 플러스톤)이 출전한 휠체어 컬링 등에서 입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은 거두지 못했다. 이번 대회 6개 종목, 78개 세부 종목 중 한국 선수가 포디움에 오른 종목은 없다.

메달 획득 여부도 선수들이 흘러 온 땀과 눈물을 펴기할 수는 없지만, 메달을 목표로 치열하게 싸워온 만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고, 현지에서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지 않는 등 대회 준비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없었던 때에도 한국 선수단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대회들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가대표 훈련 시스템과 종목별 선수 육성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평가다.

### ◇ 여성 선수 2명·평균 연령 37.8세...저변 확대 등 ‘미래’ 위한 준비해야

그간 한국 장애인체육의 약점으로 꼽혀 온 젊은 선수층과 고령화는 이번 대회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한 46개국 560여 명의 선수 중 여성 선수는 역대 패럴림픽에서 가장 많은 138명이다.이중 한국의 여성 선수는 단 2명. 최사라와 휠체어컬링 백혜진 뿐이다.

장애인체육 전반적인 저변 확대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미래를 위한 유망주 발굴도 더 힘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37.8세로, 홈 이점을 얻고 종합 1위를 차지한 중국 대표팀의 평균 연령인 25세와는 차이가 크다. 31명 중 3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9명)가 그다음이다.

한민수 파라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은 이번 대회를 마친 뒤 “(장애인아이스하키)

실업팀이 하나도 보니 국내에서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고 정제된 느낌이 있다. 또 하나의 실업팀이 생겨서 많은 어린 선수가 발굴되고 좋은 환경에서 서로 경쟁한다면 아이스하키의 비전이 밝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어린 선수 발굴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빙판 위의 메시’ 정승환 역시 “스포츠는 투자다. 중국이 베이징 패럴림픽을 유치하면서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젊은 선수 위주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앞으로 팀을 성장시켜야 세계의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13일 진행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결산 기자회견에서 “선수 발굴을 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 회장은 “신인 선수와 폼나무 선수 육성 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경기력 향상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스포츠정책 과학원과 훈련 방식 개혁 등을 위해 준비를 해 왔다. 2023년부터 (새로운) 선수 발굴·훈련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그래도 빛난 선수들...투지 불태운 노장과 반짝인 셋별들

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으나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다.

신의현은 바이애슬론 3종목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3종목 등 6종목에 출전해 약 57.5km를 완주했다.

자신이 목표로 했던 2연패는 실패했지만, 7종목에서 약 64km를 달렸던 평창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완주’에 성공하며 변함없는 투지와 끈기를 자랑했다.

알파인스키에선 ‘베테랑’ 한상민(43·국민체육진흥공단)이 활강과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슈퍼복합 등 5종목 전 종목에 나섰다. 한상민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한국의 사상 첫 동계패럴림픽 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이후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 2018년 평창 대회까지 출전한 그는 베이징이 자신의 마지막 패럴림픽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 ‘금빛 질주’를 예고했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전 종목에 출전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4년 전 평창에서 동계패럴림픽 첫 동메달을 거머쥐었던 장애인아이스하키 대표팀은 4위의 성적을 냈다.

2010년 밴쿠버 대회부터 계속해서 패럴림픽 무대를 밟아 온 이종경(49), 장동신(46), 장종호(38), 정승환(36·이성 강원도청) 등 베테랑들이 팀의 주축을 이뤘다.

미래를 기대게 하는 새로운 얼굴들의 발견도 반가웠다. ‘메달 기대주’로도 꼽혔던 최사라는 알파인스키 시작장에 부른 대회전에서 11위, 회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입상은 무산됐으나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첫 패럴림픽 무대를 마친 최사라는 “다음 대회 목표는 메달”이라며 수줍은 말투로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스노보드 대표팀에서 역시 패럴림픽 데뷔전을 치른 이재혁(25·서울시장애인체육회), 두 번째 패럴림픽을 마친 박수혁(22·대한장애인스키협회)도 4년 뒤 기량이 더 성장할 것이라 기대를 받는다.

고승남(37), 백혜진(39), 정성훈(44), 장재혁(51), 윤은구(53)로 이뤄진 휠체어컬링 대표팀 ‘팀 장운정고백’은 ‘젊은 피’는 아니지만, 5명 모두 생애 첫 패럴림픽에 나서 11개 팀 중 6위에 올랐다.